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2-30호 / 4월 8일

중국 대기업 설문조사, 국제경쟁력 육성 시급

1. 개요

□ 최근 중국 經濟貿易委員會 산하 경제연구센터가 중국 대기업을 대상으로 “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대기업 육성”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.¹⁾

- 조사결과 절대다수의 기업이 국제경쟁력 육성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, 선진국 기업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경영기법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.
- 그러나 응답기업들은 대기업 육성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부의 기업개혁 노력과 시장경제적인 제도개혁 미비를 지적하면서도, 기업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보다는 정부정책에 의존하려는 양면성을 보여주었음.

2. 주요 설문조사 내용

1) 국제경쟁력 보유 기업 육성의 필요성

-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과 대형 다국적 기업의 진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

1) 업종별, 지역별 분포를 고려, 38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음.

작은 중국기업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바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육성이 시급함.

- 조사대상 기업의 97%가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, 71%는 국제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고 답함. 또한 53%는 자체적인 기술발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함(복수응답).
- 따라서 절대 다수의 기업이 시장개방과 국제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며 핵심경쟁력을 육성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.

2)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에 대한 인식

- 중국 정부의 공식 정의에 따르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란 △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및 독자적인 지적재산권 보유, △건전한 마케팅 네트워크 및 일정한 시장점유율 유지, △선진적인 경영기법 및 인사관리 제도 도입, △기업의 생산성이 동종 업종의 선진국 기업수준에 도달, △이윤창출 능력과 위험 회피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함.
- 설문조사 결과 37%의 응답자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, 16%는 다국적 기업이어야 한다고 언급함.

3)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의 육성 주체

- 설문조사 결과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28%, 시장, 기업, 정부가 모두 대기업의 육성 주체라는 응답이 82%이었는데 기업가들이 기업육성에서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정부의 육성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97%가 대기업의 성장환경과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함. 그러나 소수의견으로 국유기업에 대한 보호강화 필요성도 제기되었음(복수응답).

5)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의 육성 방식

- 중점 육성 방식으로는 재산권 개혁(64%), 기업의 실력제고(55%), 관리수준 향상(42%), 기업구조 합리화(39%) 등을 선택하였음(복수응답).

6) 대기업 성장과정의 주요 문제점

- 응답자의 61%가 시스템의 미비를 지적하였으며, 50%가 경영능력 부족을 지적하는 등 기업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. 그러나 정부가 과도한 간섭을 한다는 의견도 39%나 되었음(복수응답).
- 기업집단화에 대해서 71%의 응답자가 정부의 지나친 강제가 있었다고 말하였으며, ‘맹목적인 규모 확대’, ‘대기업 육성에 대한 조급성’ 등 정부의 기업집단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음(복수응답).
- 또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통제, 산업정책의 부재, 재산권 개혁의 미비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기능 혼선 등이 대기업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함.
- CEO의 선출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과 상급기관에서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음.
- 한편, 기업의 R&D 수준에 대해 61%의 기업이 국제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응답하였고, 18%는 국내 선진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응답함.
- o 또한 매출액대비 R&D비율은 1~3.5%가 44%로 가장 많았고, 1%미만이 26%, 3.5~5%가 18%로 나타남. (***)